

호랑이, 리빌딩 첫 단추 잘 끼울까



KIA 주간전망

리빌딩에 들어간 프로 야구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원정 5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KIA는 10~11일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12~13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14일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맞붙는다.

현재 KIA는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일찌감치 가을 야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유망주 등 젊은 선수들이 주로 출전 중이다. 기회를 얻은 선수들은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펼쳤다. 5연승을 달리다가 3연패에 빠지기도 했다. 경험이 부족한 탓이 크다. 특히 최근에는 프로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쉬운 플레이를 많이 했다. 8일 키움전에는 실책 5개와 실책과 같은 주루플레이를 펼쳐 팬들의 차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 같은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KIA의 부활은 힘들다. 다양한 '젊은 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박흥식 감독대행은 야수와 투수 모두 테스트 중이다. 우선 마운드에는 터너와 임기영을 한번 더 점검할 예정이다. 터너는 10일 롯데전에, 임기영은 12일 두산전에 출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내년 선발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된다. 올 시즌 남은 기간에 자신의 진가를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적으로는 터너의 잔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경기 동안 7승 11패 평균자책점 5.25를 기록하는 등 부진했기 때문이다. 6월과 7월에는 승리 없이 5패만을 남기기도 했다. 그나마 8월 한달 동안 3승 1패를 거둔 것이 희망적이다.

임기영은 12일 두산전을 노린다. 임기영 역시

마운드 터너·임기영 선발 점검
야수 이우성 등 '젊은 피'에 기회



터너와 입장이 비슷하다. 10경기 2승 3패 평균자책점 6.63

이다. 어깨 통증 등 부상 여파로 뒤늦게 팀에 합류한 그가 좀처럼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탓이다. 불펜으로 나섰던 6월과 7월에는 평균자책점이 8~9점대를 오갔다. 8월 들어 선발로 전환한 후 기량이 나아졌다. 평균자책점이 8월에는 4.42를, 9월에는 3.00을 기록했다.

야수진에는 고장혁, 이우성, 한준수, 오정환 등이 나선다. 8월 후반에 엔트리에 포함된 이들은 실전 경험을 쌓는 것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고장혁은 12타수(10경기) 4안타를 기록하며 아직까지 타선에서는 괜찮았다. 하지만 수비가 문제다. 벌써 내야에서 3차례나 실책을 범하며 팀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적생 이우성(외야수)은 헛도는 방망이를 해결해야 한다. 125타수(49경기) 28안타(6홈런)에 그치는 바람에

타율이 0.224다. 한준수는 10타수(4경기) 4안타를 기록한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가 데뷔전인 만큼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직이 포수인 만큼 경험 부족은 큰 약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환도 마찬가지다. 올해 데뷔한 그는 28경기 밖에 출전하지 않았다. 타선은 많이 아쉽다. 28타수 4안타에 그치며 저조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또 긴장한 탓인지 실책성 귀루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주전 자리를 노리는 호랑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롯데, 두산, LG를 제압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한경규 기자 hkk42@srb.co.kr

순위

※9일 현재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 K	82	46	1	0.641	-	1패	
2	두산	129	77	50	0.606	4.5	2패	
3	키움	127	80	53	0.602	4.5	3승	
4	L G	134	70	56	0.556	11.0	3승	
5	K T	127	64	64	0.500	18.0	2승	
5	N C	130	64	64	0.500	18.0	1패	
7	KIA	129	56	72	0.438	26.0	3패	
8	삼성	130	54	73	0.425	27.5	1승	
9	한화	128	49	81	0.377	34.0	1패	
10	롯데	130	45	82	0.354	36.5	1승	



나달, 19승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국립테니스센터 아서 애쉬 스타디움에서 막을 내린 2019 US오픈 테니스대회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나달은 5시간에 이르는 혈투 끝에 다닐 메드베데프(5위·러시아)를 꺾고 2년 만에 우승했다. 이로써 통산 19번째 그랜드슬램 정상에 오르게 됐다. 뉴스

동신고 정구부 단체전 시즌 2관왕

전국 중·고교 추계연맹전 우승
회장기 이어 두 번째 정상 차지

광주 동신고등학교(교장 박승) 정구부가 2019년도 전국 중·고교추계연맹전 정구대회에서 2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올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동신고 정구부는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다목적 실내정구장에서 열린 전국 중·고교추계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경북 문경공고를 3-0으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동신고는 1번 복식으로 '에이스' 정정일-정운기 조가 나서 문경공고 이지성-고정혁 조를 4-2로 격파하고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이어 2번 단식에 나선 정정일이 문경공고 최종환을 4-3으로 물리치고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3번 복식 조성준-문승상 조가 이무현-박형규 조를 4-2로 제치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에이스 정정일은 단체전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해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이번 우승으로 동신고 정구부는 단체전에서 4월 장원배 준우승을 차지한 뒤 8월 회장기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등극해 전국 최강자 면모를 보여줬으며 제100회 서울 전국체전 메달 획득의 전망을 밝게 했다.



광주 동신고 정구부가 전국 중·고교추계연맹전에서 2년 만에 정상에 올라 시즌 2관왕을 차지했다. 동신고 제공

특히 동신고 정구부는 에이스 정정일을 비롯해 주장 정운기, 안하운 등 주축 선수 3명이 2학년이고 문정인·주형찬·조성준·문승상 등 4명이 1학년으로 페이스 조절에 성공한다면 내년에도 전국 최강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이번 중·고교추계연맹전 정구대회는 전국 중·고교 67개 학교에서 550여명

의 선수가 참가해 10일까지 진행된다.

손영호 동신고 정구부 감독은 "1·2학년이 주축이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탄탄한 전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새로 부임하신 박승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운석 부장선생님의 훌륭한 지도 아래 10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거두기 위해 훈련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87생기자 gingullove@srb.co.kr

배구 컵대회, 순천서 개최

여자 21일·남자 29일 개막

한국배구연맹(KOVO)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2019 순천·MG 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를 개최한다.

호남권에서 프로배구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라도 사투리를 인용한 '오메! 순천! 와! 발리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의미를 더하기로 했다.

여자부는 오는 21일 개막하고, 28일 결승전을 벌인다. 남자부는 29일 대회를 시작, 10월 6일 결승으로 막을 내린다.

배구연맹은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기존의 V-리그 13개 구단과 함께 실업배구팀 3팀을 초청했다. 남자부는 국군체육부대, 여자부는 수원시청과 양산시청이다.

여자부 A조는 KGC인삼공사 흥국생명 IBK 기업은행 수원시청, B조는 GS칼텍스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 양산시청으로 구성됐다.

남자부 A조는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대한항

공 OK저축은행, B조는 KB손해보험 우리카드 한국전력 국군체육부대로 짜다.

기대를 모은 외국인 선수와 이적생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이번 대회에는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외국인 선수에 한해 출전이 가능하다.

남자부 대한항공 유광우와 KB손해보험 김학민, 여자부 GS칼텍스 한수지 등 비시즌 동안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티켓 예매는 한국배구연맹 통합 티켓 예매처에서 할 수 있다. 뉴스